

남구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파더스하우스 방문



다울공동생활가정방문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권선하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에 기여하고자 함



김근우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계 유태
폐기물 관리 조례안

－생활계 유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처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김철현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



권선하 의원

원을 규정해 체계적 지원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안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규정해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박경수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
이방원 지원 조례안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외래진료를 제공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박구술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
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
칙안

－공무국외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정 의원

폭염 속 아이들에게 주는 시원한 쉼터

박경수 의원
(비례대표)

이번 여름의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유엔남구 물놀이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축제에는 열흘 동안 약 2만 4,500명이 참여했고, 특히 올해는 부산 최초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물놀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전과 재미는 물론, 보편적 복지 실현의 의미까지 담아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과에 힘입어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제가 북구·사하구·강서구·기장군 등을 방문했을 때, 놀이터 바닥을 방수 소재로 조성해 평소에는 놀이터로, 여름철에는 물을 채워 소규모 물놀이

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CCTV, 안전요원을 배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습니

다. 소규모 물놀이 시설은 주거지 인근에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업비 또한 일회성 시설과 달리, 최초 조성 이후에는 운영비 정도만 발생하며, 강서구의 경우 2개소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진행한 사례가 있어, 부산시와 협의한다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남구의 아이들도 집 가까운 곳에서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본 의원이 관내 권역별 적합한 후보지를 직접 검토하여 제안드릴 예정이오니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구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

권선하 의원
(용호1·2·3·4동)

요즘 아이들은 방과 후 PC방이나 편의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모두 어른들의 공간을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김해시서부청소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도비 70%를 포함해 97억 원으로 건립된 청소년 전용 시설로 내부에는 밴드실, 공연장, 북카페, e스조실, VR실 등을 갖춘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이었습니다. 성인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은 60여 개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질서와 자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구에는 마땅한 청소년

시설이 없습니다. 2024년 말 기준 남구의 청소년 비율은 약 14%로 부산시에서 5번째로 높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울릴 공간조차 없다는 것은 평정하 아쉽습니다.

부모 세대는 골목길과 놀이터에서 또래들과 활동하며 사회성을 키우고, 자아를 찾아가는 경험을 했지만, 오늘날 아이들은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업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김해시처럼 국·시·비 매칭을 통한다면 불가능한 사업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장기적 사업으로서 검토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남구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언젠가 지역을 빛내는 주역으로 돌아올 미래를 상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신중 촉구

박석민 의원
(문현1·2·3·4동)

장으로 임명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충격과 분노, 불신이 퍼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수장이 파면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이므로,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전문

성만을 이유로 해당 인사를 임명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지방공기업법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

다. 하지만 과거 파면 사유는 명백하며 '10년 이상 지난 일'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는 것은 주민 상식과 공공의 도덕 기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남구청은 공공기관의 장 임명 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남구의회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남구청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https://council.bsnang.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구청 주차난, 미래지향적 대안 제안

이중현 의원
(문현1·2·3·4동)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민차 안내판'이 보이는 남구청 주차장은 당연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원인들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몇 바퀴씩 돌며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이중 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구 전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구청이 남구의 열광인 청사마저 고질적인 주차난을 방치한다면 구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으로 구민 광장 부지에 지하 주차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니다. 지상의 광장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하에 최신 주차 시설을 확보한다면 민원인과 인근 상권 이득, 주민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장에 다양한 행사 유치를 가능케 해 구청 이미지 쇄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안양삼덕공원, 부산 시민공원, 제주도 산짓물 공영주차장 등 현명한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더 이상 '민차'라는 안내판으로 구민들에게 불편과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구가 살기좋은 1등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미끄러운 맨홀 뚜껑, 즉각적인 대책 촉구

백석민 의원
(문현1·2·3·4동)

본 의원은 '맨홀 뚜껑 미끄러짐 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남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비 오는 날, 저는 문현1동 인강사 인근 횡단보도에서 맨홀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맨홀이 시민 안전에 얼마나 큰 위험 요소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현1동의 맨홀과 대연동의 맨홀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문현1동 맨홀은 요철이 많아 미끄럽지만, 대연동의 맨홀은 요철이 높아 안전성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맨홀의 차이는 곧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

니다. 이는 도시 인프라 관리 문제입니다. 남구청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전수조사와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경사진 지면의 맨홀을 우선 조사해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거나, 신형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둘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관리주체가 다른 만큼 부산시 및 관련 기관과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맨홀 신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맨홀 위험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해 즉각 보수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맨홀 사고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명심하고,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는 조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형 라면 오픈소 시범 운영 제안

김철현 의원
(용호1·2·3·4동)

저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질 수 있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평화공원을 세웠던 위트랩 장군 조형물입니다.

박수경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직후부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았고, 정부 예산이나 개인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추진하자고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성금을 모아 조형물을 만들었고, 지난해 남구의 8번째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 '남구형 라면 오픈소'를 제안합니다. 라면 오픈소란, 누구든지

무료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소득 1인 가구, 홀로 어르신 등 부담 없이 찾아와 식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남구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40%를 상회하는 현실 속에서, 이는 단순한 끼 제공을 넘어 '함께'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복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운영은 시민·봉사단체·기업의 후원과 유류 공간 리모델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노인일자리와 지역자활센터 인력과 연계하면 공공형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봉사 기회, 기부자들에게 네그의 기쁨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남구형 라면 오픈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좌초된 용호마리나, 날아간 예산, 무너진 신뢰

박구술 의원
(대연4·5·6동)

다.

9월 14일자 부산일보에 따르면, 소유주인 부산항만공사는 "사업성과 현실성이 없다"며 마리나 도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미 인근에 수영만 마리나가 있고, 수천억 원에 사업비와 방파제 설치에만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구청은 이미 5,400만 원의 구비를 들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으나, 방파제 설치비를 누락한 채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그 결과 총사업비는 1,436억 원으로 축소됐고, 비용편익비는 역으로 1.13으로 뒤흔들었습니다. 몰랐다면 무고하고, 알았다면 주민을 속인 기만입니다. 더욱이 주민 의견조차 외면당했습니다. BPA 설문에서 31.4%가 '문화·여가 공간, 공원 조성'을 원했습니다.

남은 것은 물거품이 된 공약, 허공에 날린 구비, 잃어버린 구민 신뢰뿐입니다. 오온택 구청장님께 강력한 요구합니다. 주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금 낭비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용호만 개발의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민 뜻을 대변하는 의회의 책무입니다.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결 안건

의안명	처리결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계 유태폐기물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새벽별어린이방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굴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요양 등 지역 특성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요양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26년도 지방재정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원안가결
부산남구문화재단 사무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	원안가결

용호만 악취 문제 해소 방안 마련 촉구

박미순 의원
(용호1·2·3·4동)

본 의원은 용호만과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일대의 악취 문제를 그 근본적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용호만은 약 100억 원 규모의 준설을 했으며 30여억 원의 저서환경 복원사업을 진행했으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은 2017년 청단공법 고도처리 사업을 했으나 추가 개선사업이 없어 여전히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연천·용호천의 수질 조사와 오염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기반에서 원인

을 파악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용호천 악취를 해소해야 하며, 2028년 제5차 청단기본계획안에 용호만의 매립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구청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남부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부는 체육시설·공원 등 주민 친화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뒤 앞으로 조성될 이기대 예술공원 토피우스센터로 이어지는 도로도 쾌적한 녹색 경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악취 문제 해소는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이 달린 사안입니다. 남구청은 부산시와 협력해 용호만과 남부하수처리장 주변의 환경 회복과 체계적 관리에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왜 현직 구청장이 초대 이사장이 되지 못했나

이명정 의원
(비례대표)

남구문화재단이 대표이사와 직원 채용을 마무리하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현직 문화원장이 선출된 것과는 다소 의아합니다.

남구는 "민간 이사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인선'이라 자칭하지만, 단순히 문화원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재단 이사장 자리까지 맡는 것이 타당하지 의문입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승·창달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고, 문화재단은 구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된 별개의 기관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한 사

람이 겸임하는 것은 자칫 옥상옥(屋上屋)의 관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문화원장의 이력을 보면 문화 분야 전문가라 하기 어렵고, 재단 설립 과정상 협조가 없어 불만을 표한 바 있으며, 이미 수개월 전부터 문화원장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소문이 현상화되면서 '달래기 인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초기에는 구청과의 유기적 협조와 정책적 조율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금정문화재단, 울산·김해·창원 등 대부분 지자체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왜 우리 구는 구청장이 아닌 문화원장을 초대 선임한 겁니까? 소문대로 달래기식 인선이라면 이는 구청장의 정무적 판단 미스이며 구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공무국외출장 자료 채택 무산

허미향 의원
(용호1·2·3·4동)

저는 9월15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채택이 무산된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부여받은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이며, 그 출발점은 자료 요구와 채택입니다. 이를 통해 의회는 구청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구청장장의 공무국외출장 현황 자료 채택은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님들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의 경비는 구민의 세금으로 총망미므로 그 목적과 성과, 예산 집행내역은 의회가 확인하고 구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자료 채택 무산는 행정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책무를 약화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구민 권리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의 실효성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감사 과정에서 의회는 원칙과 공익에 따라 자료 요구와 채택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집행부도 자료를 제출하고, 명백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번 일로 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 현황 자료 채택은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님들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남구청,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

김근우 의원
(대연1·3동)

첫째, 남구시설관리공단 정성화 예산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용역비가 투입됐지만, 구조적 결재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무리한 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수익구조와 운영 가능성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추진돼 재정이 악화되고 구민 부담이 커졌습니다.

다섯째, 용호부두 마리나 사업 좌초입니다. 5천4백만 원을 들였지만 주민들은 마리나가 아닌 문화·여가 공간을 원했습니다. 주민 요구와 다른 공약 집착으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한 명이 적은 더불어민주당 목소리를 갖고도 국민의힘 정당의 의지로 강행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남구청이 보여주기식 공약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행정을 펼치기를 촉구합니다.